

**담당 :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: 02)560-4448 ㅣ Mobile : 010-7680-310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배포 일시 : 2025년 4월 11일(금) 14:50ㅣ 보도 일시 : 2025년 4월 11일(금) 14:50**

**‘iM금융오픈 2025’ 2R 오전조 주요 선수(최가빈,이예원,박지영) 코멘트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iM금융오픈 2025 |
| 2 | 기 간 | 2025년 4월 10일(목) ~ 4월 13일(일) |
| 3 | 장 소 | 골프존카운티 선산 [아웃(OUT) / 인(IN)코스] |
| 4 | 주 최 | iM금융그룹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83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이예원, 박보겸, 박지영, 홍정민, 고지우, 안송이, 이가영, 박현경, 마다솜  배소현, 황유민, 방신실, 정지효, 조혜지2, 조이안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최가빈 2라운드 중간합계 8언더파 136타(69-67) \*14시 40분 기준 공동 2위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391>

**오늘 경기 마친 소감?**  
샷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아서 만족스러운 경기다. 어제는 마지막 홀에서 3퍼트를 하면서 퍼트 감이 아쉬웠는데, 오늘은 어제보다 퍼트가 더 잘 따라줬다.

**지난 비시즌 전지훈련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했는지?**  
퍼트 연습을 가장 많이 했다. 전지훈련 때 코치님들이 ‘버디 찬스에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, 홀에 가까이 붙여놓고 파로 막아야 하는 것도 있다.’라고 많이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많이 의식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다.

**이번 대회 코스는 어떤지?**   
작년 ‘제10회 교촌 1991 레이디스 오픈’과 비교하면 러프가 길지 않아서 런이 조금 덜한 편이긴 하다. 그래도 다른 코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라 거리를 더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다.

**남은 이틀 동안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플레이할 생각인지?**  
샷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자신 있게 휘두르려 한다. 내 장점 중 하나가 비거리인데, 자신 있게 보내놓고, 스핀 컨트롤을 해서 버디 찬스를 많이 만들겠다.

**아버지가 캐디백을 메고 함께하고 있는데, 호흡은 어떤지?**  
아주 재미있고 만족스럽다.

**올 시즌 목표?**  
크게 목표를 세우는 스타일은 아니다. 매 대회 톱텐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, 작년보다 더 자신 있게 플레이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.

**◈ 이예원 2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(71-68) \*14시 40분 기준 공동 7위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84>

**2주 연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,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?**  
지난주부터 퍼트 감이 좋아졌고, 이번 주에도 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. 예선 이틀 동안 잘 유지된 것 같아서, 본선도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다.

**오늘이 어제보다 더 좋은 스코어였는데,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?**  
어제는 아이언 샷 거리 조절이 잘되지 않아서 퍼트를 많이 놓쳤다. 오늘은 샷이 더 정교해졌고, 전체적인 리듬도 좋아서 그린에도 많이 올렸고, 스코어를 더 줄일 수 있었다.

**어제 경기 후에 어떤 조정을 따로 했는지?**  
딱히 조정한 건 없고, 어제 저녁 8시 반쯤 일찍 잠들었는데, 푹 자서 컨디션이 좋아진 게 도움이 된 것 같다.

**이번 대회에서 2주 연속 우승을 기대해도 되는지?**  
솔직히 아직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. 36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만 플레이를 이어간다면 우승 못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.

**이번 코스는 스코어를 많이 줄이기 어려운 코스 같은데, 어떤 점이 까다로운지?**  
코스 자체도 어렵지만, 특히 그린이 작고 경사가 심해서 공략이 어렵다. 세컨드 샷을 할 때는 최대한 오르막 퍼트를 할 수 있는 위치로 보내고 있다.

**최근 미숫가루 이야기가 많았는데, 실제로 비거리나 체력에 변화가 있었는지?**  
미숫가루를 먹고 3kg 정도 체중이 늘었다. 덕분에 체력적으로 쉽게 지치지 않는 것 같고, 스윙할 때도 몸이 더 안정적으로 느껴진다.

**비거리는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?**  
정확히 수치는 모르겠지만, 작년보다 조금 더 나가는 느낌이 있다. 세게 치려고 마음먹으면 확실히 더 나가는 것 같다.

**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전지훈련 통해서 성장한 부분?**   
미들 퍼트 성공률과 어프로치 세이브율이 높아졌다.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, 전반적으로 쇼트게임 실력이 작년보다 향상된 것 같다.

**미들 퍼트는 어느 정도 거리인지?**  
5~7m 정도 보고 있다.

**◈ 박지영 2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(69-70) \*14시 40분 기준 공동 7위**

[상세 프로필]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362>

**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?**  
어젯밤부터 식중독 증세가 있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. 그래도 오늘 경기를 잘 버틴 것 같아서 다행이다.

**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상시랑 스윙이 달라졌을 거 같은데,**

최근에 스윙 조정을 하고 있는데, 몸이 아프다 보니 오히려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점이었다고 생각한다.

**스윙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지?**

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더 정교한 플레이를 위해 조정 중이다. 이번 주부터 이시우 프로랑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, 스윙을 바꾸면서 최대한 손목 사용을 줄이고 몸통을 회전하면서 안정적인 스윙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.

**남은 라운드 어떻게 공략할 계획인지?**  
가능하면 오르막 퍼트가 남도록 공략하고, 어프로치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플레이하겠다. 일단 잘 쉬고 회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변화들을 믿고 플레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.